



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2022년 여름 뉴스레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18

62년간의 기다림

지난날의 이야기에서 듣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국경 폐쇄와 지속되고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저희를 격려하며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그를 신뢰하게 합니다.

1997년, 은퇴한 한국 선교사이자 CFK의 전 임원이었던 아일린 모팻은 CFK의 초기 북한 방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팻 여사는 그녀의 남편인 샘 그리고 몇몇 다른 은퇴한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북한 방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일린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북한 땅인, 고향 평양에 간 것은 1956년의 결혼 이래로 샘의 62년 된 염원이자 제 마음의 갈망이었습니다. 한국의 문은 외부에 대하여 완고한 저항 없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 100년 전 한국의 외떨어진 북부 지역이 우리 가족의 일원과 그들의 동료였던 선교사들의 희생과 큰 대가로 열렸던 최근의 역사를 기억하였습니다. 샘의 아버지는 평양에 들어갔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1890년에 처음으로 이 금지된 내륙 도시에 들어왔을 때, 불길한 장면이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게이트 안쪽에 미국무역선인 ‘제너럴 셔먼호’의 앵커체인(닻줄)이 걸려있었는데, 이 배는 한 온화한 웨일스 선교사인 로버트 토마스를 태우고 간 배였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아일린과 샘 모팻의 모습

그는 중국에서 성경책들을 들고 복음의 빛을 북한의 주민들에게 전하고자 소망하여 그 배를 타고 들어간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배를 골랐습니다. 어리석은 배의 선장과 직원들이 북한 사람들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역 당국자들을 강압하여 세계와 무역의 길을 열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그때는 1866년으로, 토마스가 한국에서 순교한 첫 기독교 선교사가 된 때입니다. 그는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린 뒤 강둑에서 한 한국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며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4년 뒤 그 닻줄을 보는 모팻(샘의 아버지)은 자신이 평양에서 순교하는 다음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일년 동안 그 도시에서 6번이나 쫓겨났습니다. 저희가 1997년 1월에 평양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저희의 마음은 이 역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일린 모팻의 전체 인터뷰를 보고자하시는 분은 www.cfk.org/summer2022 를 방문해주세요)

62년간 아일린의 남편 샘이 기다렸던 1997년의 방북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 20년 넘게 일반 북한 주민들을 섬겨온 사역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팀은 환자들에게 결핵 약을 직접 나누어 주었으며 결핵, 간염 및 다른 질병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크게 돕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방북을 뒤돌아 볼 때, 하나님께서 CFK를 통해 이끄실 일들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지도해 주셨으며, 북한의 시골 및 도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민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치료되면서 결핵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문을 열어 주었고, 2015년에는 저희 사역을 확대하여 4개의 도 및 다섯 곳의 도시에서 B형 및 C형 간염 환자들에 대한 현대적 진단 및 치료 사업을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희는 평양과 개성의 실험실들을 재건축 및 재정비를 하는 것을 도왔으며, 해주에 세번째 실험실 건축을 시작하고, 3,000여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진단하고 2,0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2020년 1월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었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국경이 굳게 닫혀 있어 현재 북한 내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최근 정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 정부는 그들의 엄격한 국경 봉쇄조치가 코로나 발병을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2일, 북한 정부는 4월 말에 시작된 “발열” 케이스(코로나 발병으로 짐작되는)의 발생을 보고하였습니다. 높은 일일 발병 케이스 수는 5월 중순에 보고되기 시작했지만 그 수는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으며 8월 초에는 한 건의 발열 케이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보고하기를 73명의 환자들이 “발열”로 사망하였고, 인구의 약 18.5%에 해당하는 480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었으나 그로부터 회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간의 무역은 계속해서 심각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발열의 발생으로 봉쇄조치 및 예방조치가 취해진 때는 벼 모내기철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적기에 밭에 모내기를 완수할 충분한 노동력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벼 모내기 철

길었던 봄철 가뭄은 장마철의 빠른 시작으로 대체되었으며 지난 해들 보다는 심각하지 않지만 몇몇 지역에서 흉수 피해가 있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두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위험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곳 블랙마운틴 사무실에서는 여러 방문자들을 안내하였으며 국경이 재개되는 즉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코로나로 중국의 도시들이 계속해서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국경이 재개될 수 있는 어떤 쉽고 빠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북한방문을 뒤돌아 볼 때, 하나님께서 CFK를 통해 이끄실 일들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지도해 주셨으며, 수많은 이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 보류 상태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북한 주민들과 CFK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봉사 업무 및 후원을 통해 이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힘든 시기에 저희를 크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통치하심을 알기에 이러한 기다림과 불확정적인 시기에 그를 신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블랙마운틴 사무실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10-12